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시작...조국 심사명단 포함

심사위 논의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선별...李대통령 '최종결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외...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 포함 관측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상성한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 진 상황이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 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연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후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봉하마을 盧묘역 참배하며 눈물...“잘하겠다”

평산마을 찾아 文 전 대통령 예방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권한협대변인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을 찾았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신발을 벗고 참배객 대표로 헌화하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울먹였다. 여러 차례 꽃물을 흠치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기도 했다.

정 대표는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에 가입해 현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참여정부에서 치른 17대 총선에서 첫 금배지를 달았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들이 세웠다는 동상 앞에서는 어깨동무하는 포즈를 취하며 당 지도부,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정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이어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연합뉴스

이병훈 前 의원 “스마트 침수·재난 대응시스템 구축해야”

이병훈(사진) 전 국회의원은 7일 “집중호우와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대응하고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상황 전파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종합시스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달 17일 하루에 만 426.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교통정보센터와 안전디딤돌 앱 등의 기존 시스템은 침수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예측,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특히 안전디딤돌 앱의 경우 전국 단위 서비스로, 지역에 특화된 정보나 대피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보완과 시스템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스마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방안으로 ▲광주시 교통정보센터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계한 24시간 운영 통합상황관제센터 신설 ▲실시간 침수 및 교통정보 제공 ▲우회로 안내 ▲광주형 통합 재난안내 앱 개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정비(동별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침수 및 교통정보의 선제적 제공이 가능해져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과 시민 생활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당정대, 10일 鄭취임후 첫 고위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는 이른바 대주주 기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놓고 외부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전대후보 4명 압축...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당대표 후보 5명 중 주진우 탈락

최고위원 후보 8명 본경선 진출

국민의힘은 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의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에 오른 당 대표 후보 5명 중 주진우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의원은 탈락했다.

총 12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한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항자·최수진(가나다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모두 4명이 입후보한 청년 최고위원은 후보자 4명이 모두 본경선에 올랐다.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 득표율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예비경선 기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애쓴 모든 후보와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경선이 국민에게 힘이 되고 당의 미래가 기대될 수 있도록 선거 운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